

## 전통수의침구학

# 수태양소장경 手太陽小腸經 / 팔맥교회혈 八脈交會穴



**강 무 속**  
 동물제중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 소장 小腸의 기능과 수태양소장경 手太陽小腸經

#### 1.1 소장의 기능

개의 소장은 비교적 굵고 전체의 길이가 약 4m이며, 근층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다른 동물과 달라 위, 간장을 제외한 넓은 복강을 소장이 차지한다. 소장은 꿈틀 꿈틀 움직이는 연동 운동을 하며 내용물을 항문쪽으로 이동시킨다.

위에서 부분적으로 소화된 물질은 소장에서 체액 및 장액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효소(당, 단백질, 지방, 핵산분해 효소)와 소장의 분절·진자·연동운동에 의해서 소화·흡수되며, 담낭을 갖고 있는 개는 간세포에서 생성되는 담즙을 저장해 두었다가 소화·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장 속의 점막에는 장액을 만들어 내는 장선이 있는데 여기서 소화흡수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끈적끈적한 알카리성 액을 만들어 낸다. 소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주로 체액의 작용에 의한다. 그리고 쓸개즙(담즙)과 장액이 소화흡수를 돕는다. 물도 영양분의 일종으로 주로 소장에서 흡수된다.

전통수의학에서 소장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사목안기집·마사황오장론》에서는 “심자혈위장, 소장자수성지부” 《司牧安駟集·馬師皇五臟論》 “心者血爲臟, 小腸者受盛之腑”(심은 혈의 장이고, 소장은 그릇과 같은 부이다). 《원형료마집·사황오장론》에서는 “심시장중지군, 심위리, 소장위표” 《元亨療馬集·師皇五臟論》에서는 “心是臟中之君, 心爲裏, 小腸爲表”(심은 군주와 같은 장이고, 심과 소장은 표리관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전통수의학에서 소장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소장은 ‘수성지관 受盛之官으로 화물출언 化物出焉’이라고 하였다. 수성은 받아들여 담는다는 뜻으로 위에서 소화된 것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화물은 어떤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장의 기능을 수성화물 受盛化物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수성화물은 위에서 넘어온 소화된 음식물을 소장에 담고서 수분, 영양분, 찌꺼기 등으로 분별하여 수분과 영양분은 흡수하고 찌꺼기는 대장으로 내려 보내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 한가지 소장에 대한 기능에 대해 ‘비별청탁 泌別淸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는 분비, 별은 분별의 의미로, 위에서 소화시킨 음식물 중에서 영양분과 수분처럼 청한 것과 찌꺼기인 탁한 것으로 분류하는 작용을 말한다.

수성화물이든 비별청탁이든 모두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에는 소장에서 소화와 흡수의 과정이 완성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현대 생리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화흡수 과정을 거친 찌꺼기 중에서 일부는 대장으로 전달되어 대변의 형태로 배출되고, 수분의 경우 방광으로 전달되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한 것이다. 소변의 생성과 배설은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지만, 전통수의학에서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소장이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소장의 비별청탁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수분이 대장으로 함께 내려 설사가 나고 소변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소장은 심과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심의 병증이 소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표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연

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리적으로나 병리적으로 표리관계에 있는 장과 부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심에 열이 많은 경우, 이 열이 소장으로 전해져서 소변색이 짙어지거나 심하면 혈뇨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러한 병리상태에 대하여서는 심의 열을 꺼주고 소변을 잘 배출되게 하는 도적산, 분심기음, 청심연자음 등을 응용하기도 한다.


개의 질환 중에서 소장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파보 장염이다. 파보장염을 전통수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소장의 수성화물, 비별청탁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소장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것 외에도 기능의 문제로 생겨난 병리적 산물인 습열을 제거하는 방법을 같이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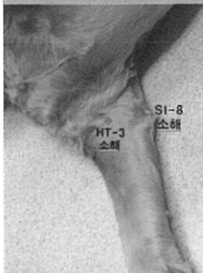
1.2 수태양소장경 手太陽小腸經


수소음심경은 소장과 연결되고, 수태양소장경은 심에 연결되니, 심과 소장은 경락학적 연관성에 있어서 표리관계를 이루고 상호영향을 미치므로 '심합소장심소소腸' 이라고 한다.

수태양소장경은 전태양소장경前太陽小腸經이라고도 하는데, 앞발 5번째 발가락에서 시작하여 척골 경상돌기를 따라 올라와 견갑가시돌기, 7번째 경추를 지나 흉부로 들어가서 심과 연결되었다가 식도를 따라 내려와 횡경막과 위를 지나 소장에 이른다. 첫 번째 분지는 흉골 옆에서 경정맥 부위로 올라와 뺨을 지나 외측 안각에 이른 후에 귀로 돌아가고, 두 번째 분지는 뺨에서 눈 밑을 지나 내측 안각에 이르러 방광경과 연결된다.



|  |                                     |                                   |
|--|-------------------------------------|-----------------------------------|
| 후계 SI-3  | 한자풀이 : 몸의 낮은 곳 중에 시내와 같은 혈자리, 팔맥교회혈 |                                   |
|  | 혈자리 위치                              | 효능                                |
|  | 다섯째앞발가락 외측, 다섯째앞발허리골머리 위의 함요부       | 관절통증, 머리질환(중풍, 발작등), 앞다리질환, 요추부질환 |

|  |  |                          |
|--|--|--------------------------|
| 소해 SI-8  | 한자풀이 : 소장경의 경수가 합해지는 곳 합혈 - 만성병치료에 좋음. |                          |
|  | 혈자리 위치                                 | 효능                       |
|  | 척골꿈치머리와 상완내측상관절용기의 중간. 척골꿈치머리 내측       | 소장질환, 정신질환, 앞다리질환, 청각장애. |

|  |  |                             |
|--|--|-----------------------------|
| 청궁 SI-19   | 한자풀이 : 똑바로 듣는 장소의 중심부 교회혈 (삼초경, 담경, 소장경) |                             |
|  | 혈자리 위치                                   | 효능                          |
|  | 외이도 바로 앞쪽에서 제일 중앙                        | 모든 귀질환 중이염, 외이염, 난청, 안면근 질환 |

사람의 수태양소장경에는 19개의 혈이 사용되고, 소동물에게는 6~7개 정도의 혈을 사용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후계(SI-3), 소해(SI-8), 청궁(SI-19) 등 3개의 혈위가 자주 임상에 응용되고 있다.

팔맥교회혈 八脈交會穴

팔맥교회혈이란 기경팔맥奇經八脈과 십이정경十二正經이 사지에서 만나는 여덟 개의 혈위를 말한다.

기경팔맥은 십이정경(=12경락)과 함께 기혈이 순행하는 경락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모두 여덟 개의 경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경은 정경과는 상대적인 의미로, 기축는 "다르다 또는 단독이다"의 뜻이며 팔맥八脈은 이러한 기경奇經이 모두 여덟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정경正經과 다르기 때문에 기경奇經이라고 명명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십이정경十二正經은 장부臟腑와 직접적인 연계관계를 맺고 있으나 기경은 장부와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지 않다. 둘째는 십이정경은 음양표리陰陽表裏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기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는 십이정경十二正經은 생체의 좌우에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기경은 임맥任脈, 독맥督脈, 충맥衝脈, 대맥帶脈은 1개의 경맥으로 되어 있고, 음교맥陰蹻脈, 양교맥陽蹻脈, 음유맥陰維脈, 양유맥陽維脈은 좌우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경팔맥중에서 임맥과 독맥은 생체의 중앙에 있으며 독립된 혈위를 갖고 있지만 나머지 여섯 개의 기경은 소속된 혈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경팔맥을 이용하여 병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기경팔맥을 이용한 치료를 오랫동안 연구하여 온 결과 기경과 십이정경十二正經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지 부위에서 기경으로 통하는 혈위 여덟 개를 확정하였는데 이것이 곧 팔맥교회혈인 것이다. 즉 십이정경에 있는 여덟 개의 팔맥교회혈을 이용하여 기경팔맥 치료의 방편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팔맥교회혈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팔맥교회혈은 치료범위가 넓고 효과적인 침혈이므로 임상에서 많이 쓰인다.

양유맥의 병에는 수소양삼초경의 외관혈外關穴을 취하고, 음유맥의 병에는 수궐음심포경의 내관혈內關穴을 취하며, 대맥의 병에는 족소양담경의 족임읍혈足臨泣穴을 취하고, 충맥의 병에는 족태음비경의 공손혈公孫穴을 취하며, 음교맥의 병에는 족소음신경의 조해혈照海穴을 취하고, 양교맥의 병에는 족태양방광경의 신맥혈申脈穴을 취하며, 독맥의 병에는 수태양소장경의 후계혈後谿穴을 취하고, 임맥의 병에는 수태음폐경의 열결혈列缺穴을 취하는 것인데, 이는 십이경맥의 혈위를 취하여 기경의 질환을 치료하는 예이다.

팔맥교회혈은 전지에 네 개혈, 후지에 네 개혈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후 한 개씩 두 개혈을 한개 조로 하여 전체적으로 네 개조로 배합하여 운용된다.

팔맥교회혈 중 음경락에 있는 4혈은 오장의 질병을 다스리고 양경락에 있는 4혈은 육부와 지체, 두면부의 질환을 다스린다. 이러한 팔맥교회혈과 십이정경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 기경팔맥      | 8혈        | 본경맥              | 주치증                       | 질 환                 |
|-----------|-----------|------------------|---------------------------|---------------------|
| 충맥<br>음유맥 | 공손<br>내관  | 족태음비경<br>수궐음심포경  | 가슴, 심장, 위                 | 호흡기, 소화기,<br>소아질환   |
| 대맥<br>양유맥 | 족임읍<br>외관 | 족소양담경<br>수소양삼초경  | 목, 어깨, 등, 눈 바깥쪽,<br>뺨     | 신경계, 운동계,<br>안질환    |
| 독맥<br>양교맥 | 후계<br>신맥  | 수태양소장경<br>족태양방광경 | 눈 안쪽, 목, 어깨,<br>귀, 방광, 소장 | 신경계, 운동기,<br>피부질환   |
| 임맥<br>음교맥 | 열결<br>조해  | 수태음폐경<br>족소음신경   | 가슴, 폐, 인후, 횡경막            | 소화기, 비노기,<br>산부인과질환 |